

여수시, 원도심에 '달빛갤러리' 개관



여수시가 지난 8월 엑스포 아트 갤러리의 문을 연데 이어 11월 달빛 갤러리 개관을 이어가며 전시공간을 확충해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달빛갤러리는 고소대 인근에 2층, 연면적 79.14㎡ 규모

고소대 인근 2층 규모...전시실·무대시설 등 오늘 개관기념 지역작가 26인 초대전 개최

로 전시실과 무대시설 등을 갖추고 지난 6월 준공했다.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공모사업 선정된 후 총 사업비 3억6000만 원이 투입돼 올해 2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시는 달빛갤러리 개관을 기념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수지역 작가 26인 초대전시회를 연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2억6400만 원을 투입해 박람회장 한국관 3층

에 엑스포 아트 갤러리를 조성했다. 이후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는 개관 기념 전국 작가 50인 초대기획전, 2017 국제아트페스티벌, 여수지역작가 초대기획전 등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달빛갤러리가 원도심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목포시, 희망 펫티켓 캠페인 실시

동물등록제 참여·목줄 착용·배설물 수거·입양당 당부

목포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최근 개 물림 등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목포고양이보호연합(회장 김인숙)과 함께 목포항구축제가 간인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목포시 희망 펫티켓 캠페인'을 실시했다. 펫티켓은 애안동물을 뜻하는 영어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신조어다. 시는 축제 방문객에게 반려견 주인을 알 수 있는 동물등록제 참여를 독려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을 홍보했다. 또 "반려동물을 사지 말고 유기동물을 입양하자"고 당부했다. 배석인 농업산업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식전환과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펫티켓 캠페인 등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TNR)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개체수 조절을 통해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일본 선적 퍼시픽 비너스호, 내일 여수 입항

여수시에 올해 두 번째 크루즈선인 퍼시픽 비너스(Pacific Venus)호가 입항한다. 시에 따르면 일본 하카타항에서 출항한 재팬 크루즈사의 2만7000톤급 퍼시픽 비너스호가 11월 2일 여수엑스포 크루즈항에 도착한다. 탑승객은 일본 관광객과 승무원 등 360여 명이며, 여수 등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정을 보낸 후 하카타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다.

이날 탑승객들은 오전 7시 입항 후 해상케이블카, 오동도 낙안민속촌, 순천만 등을 둘러보며 남도의 정취를 만끽할 예정이다. 자유여행객들은 시에서 마련한 셔틀버스를 타고 해양공원 이순신광장 등을 구경하게 된다.

시는 탑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방풍나뭇·김·동백화장품·여수꽃망 등 특산물판매장과 관광안내소, 환전소 응급진료소 등을 엑스포항에 운영한다. 또 퓨전국악단 '짬이'와 시립국악단의 환영공연도 준비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중국 내 한국

2만7000톤...일본인 관광객 등 360여명 탑승
여수 등에서 16시간 보낸 후 하카타항 귀항해



관광프로그램이 판매되는 등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에 있다"며 "활발한 유치활동을 통해 중국은 물론 동남아, 대만 등의 많은 관광객이 여수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퍼시픽 비너스호는 길이 183.40m, 너비 25m 규모로 총 수용 인원은 880명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건강 100세, 행복한 노후 보내요"

무안군, '중풍 ZERO, 관절 UP' 건강교실 운영

무안군보건소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11월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동탄면과 운남면 지역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중풍 ZERO, 관절 UP'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식습관 변화 및 고령화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중풍과 농촌지역 직업의 특성상으로 이환되기 쉬운 골관절질환에 대해 침술, 건강체조, 근·신경 조절술 등 한의약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한방건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프로그램에서는 골관절질환에 대한 증상 및 관리법을 교육하는 한

편, 신체활동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과 신체적 증상 완화를 위한 한의약적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한의사와의 1:1 건강상담을 통해 대상자 개개인에 대해 알맞은 건강관리법을 제공해 지역주민들이 중풍과 관절질환을 스스로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김인상 무안군보건소장은 "농촌지역이 날로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맞춤형 한방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국제학회서 수상잔치

상황버섯 추출물 탈모개선·표고버섯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 밝혀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지난 10월 28일부터 2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버섯학회에서 '우수구두발표상'과 '우수포스터발표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아시아버섯학회는 버섯연구에 관한 아시아 최고 수준의 학자와 연구기관이 참가해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대회다. 이번 학회에서는 버섯의 육종 및 재배기술을 비롯한 생리, 유전, 기능성, 가공 등 총 98건의 연구발표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R&D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연구 성과 7건을 발표했다. 학술구두발표상을 수상한 임승빈 연구원은 '상황버섯 에탄올 추출물의 유도에 관한 세포 성장률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상황버섯 추출물이 현대인의 주요 질환인 탈모 개선과 육포작용에 효과가 있는 것을 입증했다. 우수포스터발표상 수상 주제는 '표고균사체로 발효한 적하수오의 2차 초산발효물에 대한 이화학적 특성'으로, 표고와 생약초 발효물이 자극성 감소에 따른 갱년기 증상에 완화효과가 있는 것을 밝혀냈다. 제해신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적극 산업화를 추진해 버섯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중민 기자

지역공감미케팅 전문직업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형 **일자리**

원·하청관계 개혁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광주광역시 GWANGJU CITY